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제 43 - 20 호

2026년 5월 17일

-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로 오늘은 늘푸른사랑방에서 예배를 주관하였습니다.
- 다음 주일은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젊은이사랑방이 예배를 주관합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 사랑방공동체학교 바자회가 23일(토)에 있습니다. 기증물품은 17일(일) ~ 22일(금)까지 받습니다.
- 사랑방탁구대회가 24일 예선, 31일 결선이 있습니다.
- 23일(토) 오후 1시 40분 / 라비니움 4층 블룸홀 / 박승관 군, 유규은 양
23일(토) 오후 4시 / 감리교신학대학교 웨슬리채플관 1층본당 / 박주영 군 윤신애 양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감사)
이창운 집사 · 양일자 선생 가정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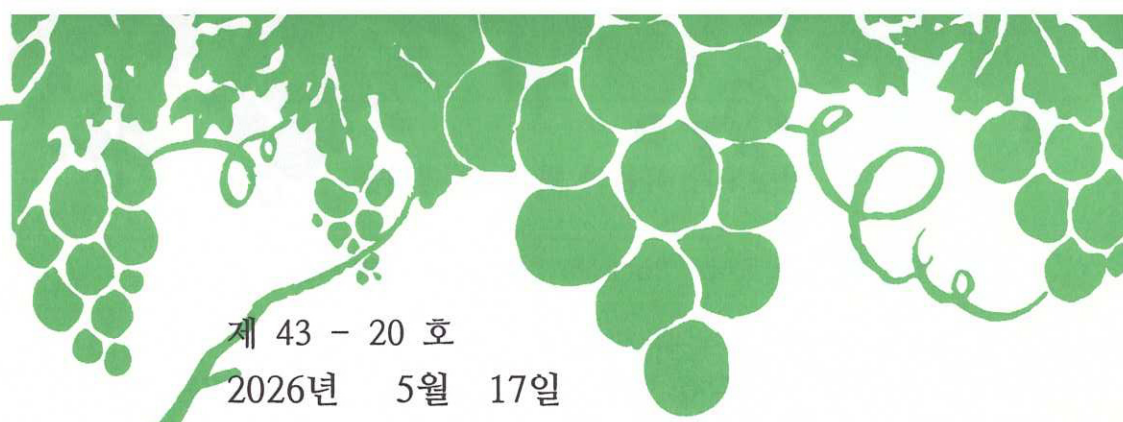
강단을 꽃으로 :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농협(학교후원회계좌) 사랑방공동체학교(정태일) 351-1165-8216-4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한반도가 복음의 빛을 진 청년들

1. 루비 켄드릭(Miss Ruby Rachael Kendrick, 1883~1908)

1908년 엽뮌 청년회가 텍사스에서 선교대회를 열고 있을 때였다. 조선에서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당시 편지는 일본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선박으로 갔고, 다시 육로를 통하여 수개월씩 걸려서 전달되었다. 내용인즉, 조선의 기후를 비롯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소개하는가 하면 인심이 넉넉한 조선 사람들을 극찬하면서 하루빨리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염원하는 내용으로 짝 들어왔다.

그 편지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이튿날 그 편지를 보낸 당사자인 루비 켄드릭(Ruby Kendrick)이 세상을 떠났다는 전보가 도착되었다. 편지는 수개월이 걸려서 전해지지만 전보는 즉시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겼던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열 명씩, 스무 명씩 조선선교사로 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이 말이 선교대회장에 전달되자 모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고, 그들의 슬픔은 오히려 선교 열정으로 승화되었다. 그들 중 20여 명은 루비처럼 자기들도 이방 땅에 가서 심장을 문졌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를 방문하면 한 묘비가 우뚝 서있다. 24세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영어를 가르쳤으며, 아픈 아이들을 간호했던 선교사의 것이. 활동을 시작한지 불과 9개월도 지나지 않아 순교한 루비 켄드릭의 묘비, 거기에는 이렇게 씌어져 있다.

“만일 내게 일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2. 성 도리 베드로 헨리코 신부(Pierre-Henri Dorie)

성인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당시 한국 성을 ‘김(金)’으로 정했기

에 ‘김 헨리코’ 혹은 ‘김 베드로’라고도 부른다.

성인은 1839년 프랑스 뤼송교구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신심 깊은 가정에서 자란 그는 소신학교를 거쳐 1862년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에 들어갔다. 성인의 부모와 본당신부는 그가 선교사가 되는 것을 반대했었다. 성인이 어려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인은 “외국 선교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 진실로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하느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으니, 그분께 순명해야 한다”고 설득해 승낙을 얻었고 1864년 5월 21일 사제 서품을 받았다.

성인은 서품을 받고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조선으로 출발했다. 이어 홍콩, 요동, 백령도, 충청도 내포 지방을 거쳐, 1865년 5월 경기도 손골 교우촌에 자리를 잡고 우리말을 배우면서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아직 우리말 공부를 채 마치지 못한 1966년 2월, 성인은 베르뇌 주교가 체포된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에 성인은 손골 교우촌의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 내보내고 홀로 손골에 남았다. 거센 병인박해의 진행 상황을 전해들은 성인은 손골 역시 박해의 위협에 놓였음을 알아챈 것이다. 성인은 그렇게 같은 해 2월 27일 손골에서 붙잡혔다.

체포되긴 했지만, 프랑스인이었던 성인은 순교 이외의 선택도 할 수 있었다. 관리들이 성인을 문초하면서 그를 프랑스로 돌려보내겠다고 한 것이다. 굳이 배교하지 않더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였다. 하지만 성인은 “이 나라에 머무는 동안 말을 배웠으니, 죽으면 죽었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성인에게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한다는 사명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일이었던 것이다.

결국 성인은 27세의 나이로 서울 새남터에서 두 번의 칼날을 받고 머리가 떨어져 순교했다. 그 바로 옆에는 함께 선교하러 와서 붙잡히고는, “나는 당신들의 영혼을 구하려고 조선에 왔소. 나는 천주를 위해 기꺼이 죽겠소.”라고 말하고 순교한 친구의 몸도 있었다. 그 장면을 목격한 한 신자는 새남터에서 순교하는 성인의 모습이 “눈을 뜨고 참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었다고 회고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 손골성지 소개문에서 발췌

한주간의 말씀

“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

<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302 384 / 295

기도 :

성경 : 로마서 11장

제목 : 구원의 놀라운 섭리

1. 내용: 이스라엘과 이방나라 사이에 구원의 관계가 있다.(What)

<문단구분>

1~10절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

11~24절 이방 사람의 구원

25~32절 이스라엘의 회복

33~36절 송영

2. 의미: 서로 상보적인 관계이다. (Why)

1) 이스라엘의 허물이 이방의 구원이 되었다.

2) 이스라엘의 회복은 더 큰 복이 될 것이다.

3) 온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3. 적용: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자 (How)

1)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로서 믿음을 잘 지키자

2) 신앙적인 측면에서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자.

3)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자.

저는 요즘 팽글러라는 팀에서 연출 막내로 다양한 상업 광고에 참여하고 있고, 영상 프로젝트들에 참여하며 좋은 기회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하루들 속에서도 문득 '청춘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요즘인데요. 청년주일 주보에 무슨 글을 써야 할까 라는 고민 중에 최근에 제가 체감한 청춘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시선과 관계 속에서 걱정하고 상처받으며, 작은 일에도 불안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들이 많은지 쉽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마냥 짱 좋고 자유로운 시기라고 생각했던 청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청춘은 반짝이고 자유로운 시절임과 동시에 불안과 고민, 선택의 순간들을 함께 지나는 시기라고요.

거창하게만 부담스럽게만 느껴졌던 청춘은 거창한 순간보다도 일상 속에서 문득 체감되는 시기였습니다. 새벽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사람들과 함께 영상을 만들어가는 순간, 현장에서 바쁘게 뛰면서도 행복한 순간 등 여러 순간들 속에서 청춘을 체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펙스의 청춘에게 라는 노래에선 꿈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방향을 잃고 흔들리더라도, 지금의 고민과 방황 자체가 청춘의 일부이며 그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빛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더 흔들리고, 그래서 더 뜨겁게 살아가는 시기. 어쩌면 청춘은 서툴지만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 느려도, 때로는 흔들려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 또한 충분히 아름다운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늘푸른사랑방 이은빈 늘푸른

은혜 못 갚을 줄 알아!

하나님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로마서 14:17)

사랑방공동체는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를 부분적이지만 실제로 살아보고,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나누고, 전하고자 함을 지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벗어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나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를 하려면 먼저 쓸모없는 것들, 장애가 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 돈·권력·명예 등에 대한 욕심, 빠르게 해결하고 이루고자 하는 성급함, 비교하며 부족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계속 일어나는 불평, 마음, 편견 등이 안타깝게도 내 안에 고루 다 있습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장애물과 날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회개합니다. 때로는 좌절도 하고 지치기도 하며 도망가는 꿈도 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처지를 다 아시기에 좋은 모델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통해서, 서로 피드백을 통해서 존중과 신뢰를 배우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에 생기를 주기도 하고 받게도 하십니다. 서로 위로가 되어서 다시 도전하고 힘을 내게도 하십니다. 왜 공동체로 살아야 하나? 에 대한 인식과 갈 길을 생각하게도 하십니다.

이러한 싸움 가운데 보낸 세월이 오래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너그럽게 견디고 기다리는 힘이 나아졌습니다.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랑방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견디어 낼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용신 장로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재훈 목사

찬 송 : 304장, 310장

성 경 : 로마서 11장 1~10절

말 씬 : 이스라엘의 남은자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중동의 평화를 위한 기도>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아슬아슬한 휴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전을 향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군사적 긴장감이 해소 되고 평화의 시기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개혁자들을 위한 기도>

팔레스타인 평화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절망만 가득한 땅에 평화를 향한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평화 운동의 준비와 실행까지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 교육관 증축이 안전하게 진행되며, 마무리 행정 과정이 잘 진행 되도록

* 꾸러기학교 여행과 어린이학교 캠프를 위해서

<생활공동체 소식 >

낮의 햇빛조각 하나가 땀 한 방울로 쉽게 바뀌는 짙은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꾸러기학교는 파주로 봄여행을, 어린이학교는 어린이대공원으로 캠프를 신나게 다녀왔습니다. 특히 스승의 날에는 졸업생들을 포함한 공동체학교 학생들의 감사의 표현들이, 선생님과 부모님의 마음에 감동을 가득 안겨주었습니다.

교육관 증축이 완성단계가 가까워졌고, 밭에서는 싱싱한 상추를 뜯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착착 농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자회를 앞두고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부디 건강에 탈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 이어진 전도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파주로 1박 2일 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임진각과 오두산 전망대에서 눈앞에 보이는 북한을 보며 꾸러기들에게 76년 전에 있었던 전쟁과 분단된 조국의 슬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꾸러기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라, 이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이 낯설어가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평화를 꿈꾸자고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고 희망을 이야기 했습니다. 평화누리 공원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숙소에서도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잠자기 전 "엄마, 아빠를 보살펴 주세요."라고 의젓하게 기도를 드리더니 한 번도 깨지 않고 단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참 기특한 우리 꾸러기들입니다.

스승의 날에 꾸러기들과 부모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많이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꾸러기학교를 졸업한 멋쟁이들의 등장과 감사의 표현에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13(수) ~ 14(목) 서울 대공원 자연캠핑장으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축석에 모였는데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손에 바리바리 싸 온 재료와 기구들이 캠프의 시작임을 알렸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해서 무거운 짐을 아름아름 들고 오르막길을 오르고, 텐트에 도착하자마자 조장들은 마음이 급해 코펠받고 쌀 씻고~ 집에서 연습하고 왔는지 순서대로 하는 모습이 참 예뻐습니다. 김치 볶음밥, 샐러드, 목살구이, 카레, 주먹밥, 팝콘, 팥빙수, 라면, 샌드위치등~ 정말 대단한 음식들이죠? ㅎㅎ

10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찌나 소곤소곤하는지... 웃음소리와 재잘거림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어느새 아이들은 꿈나라로 갔었고, 다음날 새벽 5시부터 까마귀가 울던 그 시각 !!! 1.2 학년 남자아이(?)

들이 일어나서 또 재잘재잘~ 알람이 되었답니다.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설거지하고 코펠 챙겨서 반납하고 정리한 후 하산(?)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갈매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더위를 식힌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진혁 (최하늘), 신경수(신예서) 아버님께서 1박 2일 도우미로 오셔서 더 안전한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5일(금) 스승의날,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위해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졸업생들까지 와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는데 참~ 교사로서 행복했었습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푸른 신록과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했던 도보여행, 그리고 꿀맛 같은 일주일간의 휴식을 마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시작된 일상 속에서 해가 눈에 띄게 길어지고 날씨도 더워져 여름이 부쩍 다가왔음이 실감 나는 요즘입니다. 급격한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학기말까지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몸과 마음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주제로 한 새로운 공동심화학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아픔을 다각도로 마주하며, 평화의 가치와 국제 사회의 연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5월 15일 금요일 스승의 날, 감사의 마음이 담긴 온기가 공동체에 가득했습니다. 멋쟁이들의 정성 어린 깜짝 이벤트는 선생님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자리를 넘어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아끼는 사제지간의 정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서로를 존경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한편, 다가오는 5월 23일 토요일 바자회 준비로 활기가 가득합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껏 기획하고 열심히 땀 흘리며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물건도 나누고, 서로의 따뜻한 온기도 함께 나누는 풍성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교사 : 장성아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68 : 1-3 인도자
26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대표기도)

마가복음 2 : 5 인도자
300 다함께
다함께
윤혜교 늘푸른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베드로전서 5 : 6-11 김지우 늘푸른
성가대 청년의 기도, 나 주님의 기쁨되기 늘푸른사랑방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337 다함께
진시우 늘푸른
288(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김예흠 박인혁 김은지 이현준 / 봉헌위원 : 화진의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흥인 정아인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 머물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고난 중에 성도. 베드로서의 독자들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비두니아에 흠어져서 사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입
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불명예를 입었으며 경제적으
로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것으로 실제적인 고난 중
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권면. 베드로는 누구보다 신앙적으로 실패해 본
사람입니다. 자신의 깊은 은혜의 체험을 바탕으로 성도들에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위탁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
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낼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된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성품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참된 겸손은 내 인생의 주
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 속
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김병우 집사